

주사위는 던져졌다

(간질이란 어떤 병인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등 저명한 어귀를 남긴 로마의 정치가 줄리어스 시저는 놀랍게도 전신 발작형 간질(癇疾) 환자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죄와 벌>의 작가이자 러시아의 대 문호(文豪)인 도스토예프스키는 복합 부분 발작을 보이는 간질 환자였다. 그의 저서 중 일부는 복합 부분 발작 중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간질(癇疾: epilepsy)은 의식 상실과 근육의 간대성(間代性) 경련(근육의 경련을 동반한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뇌 질환이다. 이것은 신경계를 침범하는 여러 가지 질환의 경과 중, 또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후이다. 간질은 뇌의 일정 부위에서 시작되는 과도한 신경 방전(神經 放電)으로 인한 의식 상실, 경련, 이상 감각, 자율 신경 증상 및 정신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적인 질병이다.

간질은 전 인구의 약 1%정도나 된다.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0.5%정도의 인구가 간질 환자로 집계되며 그 중 75% 정도는 2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질은 그 원인에 따라 구분을 하자면 원발성(선천적, 유전적)인 것과 증후성(이차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증후성 간질의 원인으로는 두부 손상,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보는 것과 같은 뇌 세포의 산소 부족 등이 있다. 아직 뇌 세포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고열(高熱)과 함께 발생하는 열성 경련도 있으며,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술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으로서의 경련 발작도 있다.

간질은 그 성격에 따라 처음부터 의식 소실이 발생하고 쓰러지는 전신성(全身性) 발작과 의식 변화가 없거나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部分) 발작으로 나뉜다. 이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며 그 임상 경과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간질은 어떤 유형의 것이든 간에 빨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에 나타나는 열성 경련의 경우 대개 성장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으나 후일 간질 환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시작하는 전신 발작형 간질의 경우 적절한 약물로서 80% 이상이 완전히 조절된다.

현재 4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은 초등학교 시절 각 반에 보통 한 명 정도로 간질을 일으키는 급우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한 학급의 인원이 70-80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간질의 유병율이 약 1% 정도가 된다는 사실이 수궁이 같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 교실에서나 버스 안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환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간질의 발병률이 과거와 전혀 달라진 바 없는데다가 최근 교통사고 등으로 두부(頭部) 손상을 입어 이차적인 간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즉 의학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질에 대한 연구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진단과 치료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치료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간질로 확실히 진단 받은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치료의 장(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치료의 원칙은 일부 소아의 경련 질환을 제외하고는 보통 '단 한 번도 발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하에서' 만 5년간의 약물 치료를 받은 후에 약물 투여의 중단을 시도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렇게 약물을 중단한 환자들 중 약 40%는 재발하여 또다시 일정한 약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생명의 질(質)로 따질 때는 과거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과거에는 천병(天病)이라 하여 경멸(輕蔑)의 대상이 되었던 환자들도 현재는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간질을 가지고 있는 소아의 95%는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다. 간질을 가진 성인의 75%는 직업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 모든 간질 환자의 단 5%만이 만성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재활 요법을 받는다.

비록 반복되는 간질 발작이 삶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듯한 험오스러운 경험일지라도 치료의 방침을 잘 따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간질 환자들은 원인도 모르고 그 치료도 막연하였던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행운을 잡은 것과 다름이 없다.